

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재조정 움직임

□ 최근 유럽의 금융 감독당국자들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들에게 대차대조표 건전성 강화와 완충자본 확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, 일부 대형 은행들은 자본 사정의 악화로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음

□ 특히, 유럽의 일부 은행들은 신규로 추가적인 자본조성 없이 자산매각에 대한 보완책으로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된 보유채권 재조정 방식의 회계처리 전략을 통해 강화된 자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

□ 연금 및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자들은 유럽 은행들의 바젤 Ⅲ 자본규제 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채권 재조정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의 자금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관측하고 있음

□ **최근 유럽의 금융 감독당국자들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들에게 대차대조표 건전성 강화와 완충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일부 대형 은행들은 자본금 사정의 악화로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음**

— 유럽의 은행 감독기구인 EBA(European Banking Authority)는 2011년 10월 유럽 지역 은행들의 장래 잠재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 자본조성을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2012년 6월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(tier 1)을 현행 의무비율 2%에서 9%로 증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음

- EBA는 은행의 장래 지급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증권들을 규제할 방침으로 특히,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산입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

— EBA에 따르면, 일부 대형 은행들은 최소의무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,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

- 금융 감독당국자들의 추산에 따르면, 현재 유럽지역 금융회사들은 2012년 여름까지 최소 1,42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해야 하며, 이중 그리스 은행들의 자금조달금액이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

—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은 자본금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자산매각에 나서고 있으나, 금융 감독당국을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은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자산가치의 하락을 유도한다는 근거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

- 투자자문회사인 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, 유럽 금융회사들은 향후 10년간 1.8조 달러 이상의 대출자산 매각이나 상각(write down)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, 이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각 또는 상각한 대출자산 970억 달러에 비해 급증한 수치임



□ **특히, 유럽의 일부 은행들은 신규로 추가적인 자본조성 없이 자산매각에 대한 보완책으로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된 보유채권 재조정 방식의 회계처리 전략을 통해 금융 감독당국의 강화된 자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**

— 영국의 Barclays, 독일의 Commerzbank 및 프랑스 BNP Paribas를 포함한 일부 유럽 은행들은 신규로 자본 확충을 통하지 않고 복잡하고 교묘한 조치를 통한 보유채권 재조정 방식으로 자본수준을 개선시키고 있음

• 특히,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바젤 III(Basel III)의 자본 확충에 대한 기한이 촉박해짐에 따라 완충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유한 하이브리드증권을 일정한 할인율로 교환하거나 환매하는 회계처리 전략으로 재조정하고 있음

— 회계기준에 따르면, 금융회사는 증권의 액면금액과 할인된 현재가격의 차이를 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어 이러한 회계처리 전략이 가능해짐

• 예를 들면, 특정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의 하이브리드증권을 30% 할인된 수준인 7억 달러에 환매하였다면, 3억 달러만큼의 부채를 축소시키고, 3억 달러 중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고 품질의 자본(highest-quality capital)으로 계상할 수 있음

— 그러나, 이와 같은 회계처리 전략은 현금유출을 유도하여 경제위기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취약성을 한층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• 시장전문가들은 복잡한 부채증서(debt instruments)를 매수하기 위해 현금 또는 유동성을 소진하는 은행들의 행위가 시장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에게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

□ **유럽 은행들은 바젤 III 자본규제 강화에 부응하기 위해 채권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, 연금 및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자들은 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자금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관측하고 있음**

— 최근 Barclays는 은행의 하이브리드증권 활용을 제한하는 자본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9억 달러 상당의 하이브리드증권을 30% 할인율로 환매 제안함

— Lloyds Banking Group도 시장변동성 대응과 자본금 개선을 위하여 보유채권 77억 달러를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기로 결정함

• Lloyds Banking Group은 2008년 27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정부가 41%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, 투자자들에게 해당채권의 할인율을 30%까지 요구하고 있음

— 또한, BNP Paribas, Societe Generale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해 현행 시장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환매 결정하며, 투자자 부담을 상당부문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함

• 현재 투자자가 하이브리드증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, 일부 증권들은 액면금액의 50% 이하의 높은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음

— 그러나, 일부 연금과 보험회사를 위시한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채권 재조정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있음

선임연구원 박태준